



양계산물 상표의 두 얼굴 과감한 개선이 요구된다.

양계업계에도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수입개방과 더불어 우후죽순 격으로 계란과 닭고기에 상표를 붙여 소비자들로부터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상표화가 유행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를 두고 브랜드(Brand)화라고 너도 나도 부르고 있다. 브랜드란 사전식으로 표기하자면 상표(trademark)라는 뜻과 소인을 찍는다라는 의미가 있다.

아마도 일본식 화(化)를 어미에 붙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상표를 붙이는 경향(추세)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이보다 더 전문적인 어원 풀이는 국어학자가 해야 할 일이므로 우선 계란과 닭고기에 상표를 붙이는 것을 브랜드 한다고 할 때 브랜드를 하는 이유부터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상품에 상표를 붙이는 것은 설명제를 하는 것이다.

어떤 상표든 이름만 붙여 놓는 것은 없다. 생산자 또는 유통, 판매자의 현황이 기입되게 되므로 소비자에게 믿고 안심하고 구매하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다음은 영업 전략상 상표를 붙인 제품이 없는 제품에 비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어 소비욕을 자극케 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매의 연속성을 시도하는 의미

도 있다. 구입하여 먹어 본 결과 만족한다면 그 소비자는 계속해서 같은 상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구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부 생산자나 상인들이 상표를 부착하는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말썽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생산하는 계란과 닭고기에 그저 막연하게 상표를 붙이면 된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현행법상 상표는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상표법으로 모든 행위범위를 명문화하고 있다.

동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상표는 등록을 함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표를 단순히 타 상품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 글자나 도형만으로 사용을 한다면 문제가 그다지 크지는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표에는 자기가 생산한 상품을 부각시키기 위해 특정 보강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분 검사를 하여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없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과장내지 허위광고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점에서 많은 양계산물이 상표부착과 함께 성분 표시를 하여 유통되는 과정에서 제조 상품이 아닌 관계로 심심치 않게 문제를 야기 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불신을 받아 양계산물 전체의 소비를 저하시키는 불상사가 발생되기 도 한다.

금년 9월에 COEX에서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양계산물의 상표도 질적인 수준향상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수입된 계란이 원산지 표시도 없이 국내산 계란과 섞여 특별한 계란으로 상표를 붙여 버젓이 유통을 시키는 일이나, 수입된 닭고기를 마치 신선육으로 국내산 닭고기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유통단계는 속히 개선이 요구되지만 전 양계인과 행정당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시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소비자도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양계산물이 생산되어 공급되는 것은 시대적인 부응이다.

이때 믿음을 전달케 하는 상표나 특성 표시가 내용과 달리진다면 양계산업발전의 밑바탕이 부실해지게 마련이다.

상표 또는 내용 표시에 보다 철저를 기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닭 질병 발생 예방대책 사전 예보제 필요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닭이 항상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늘 질병 발생의 요인이 주변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사양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모든 질병이 발생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금인플루엔자의

발생사실을 확인한 것과 관련하여 닭 질병 발생에 대처하는 기준의 사고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질병 발생 확인 및 치료 예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체계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세계화 시대에 돌입한 2000년대를 살아가는 양계인들에게 다소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연관하여 장거리 수송상 불거져 나오는 각종 유해 인자가 검출되고 있는 수입 식품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식품이 다소 경쟁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식품 생산과 관련하여 원자재의 생산 과정이 비합리적으로 관리되어 수입산물에 비해 안전성과 신선도 면에서 우수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양계인들이 겨는 기대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변화와 닭의 관리여하에 따라 질병이 발생하는 만큼 계절이나 환경변화에 따라 질병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보를 시행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예보는 공신력이 있는 국가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양계인들이 각종 질병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대부분 비전문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양계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국에서 가장 우선시하여 체크하는 질병이 바로 가금인플루엔자이다.

이점은 우리나라로 마찬가지이다.

수출 경쟁력을 주장하는 마당에 지난 1999년부터 금년 초까지 경기 포천, 경북 김천, 경기 이천, 전북 김제, 익산 등 전국적으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되었다는 공식 확인이 있었다.

실험실 진단으로 혈청형이 H_9N_2 에 해당하는 약병원성이라고는 하지만 발생 사실을 놓고 전 양계업계가 긴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이 병의 전파 경로는 닭에 있어 정확하게 규명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칠면조, 철새, 수입 애완용 조류, 닭에서 닭으로나 사람과 기구 등 다양화 되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철새는 고사하고 거울 철에 집단 폐사하는 닭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지 않고 있다.

질병이 발생하여 폐사한 닭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는 동안 질병은 무서운 속도로 번져 원인이 규명되었을 때에는 이미 해당 닭은 도태되어 현장 보존이 어렵거나 차단 방역이 제대로 안되어 양계인들은 불안한 마음에서 미약한 행정조치에 질타성 항의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보상과 연관이 있는 질병일수록 잡음은 많다. 100%의 정확성이 아니더라도 시기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닭 질병 예보를 내려 사전 대비와 아울러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신속한 차단방역에 도움이 되도록 고려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양계**